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주홍글씨)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아침	40 아침연속극 (여자를 몰라)
30 KBS 뉴스	00 생생정보통 스페셜 20 아침드라마 (사랑하길 잘했어)	9 30 MBC 뉴스 45 기본종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화해행복한 세상	50 여유만만	10 00 MBC 뉴스와 경제 25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	40 SBS 뉴스
00 여성공감 55 바른말 고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희망드라마 (우리는 한가족)	11 00 드라마특선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50 월화드라마 (매리는 외박 중)(재)	12 00 MBC 뉴스와 경제 25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	00 SBS 12 뉴스 30 송년특집 KBC 열린토론회 (농업부가치를 올려라)
00 KBS 걸작선 (비람의 나라)(재)		1 15 문화사색	30 마담의 식탁
00 KBS 뉴스 10 KBS 월요특강	00 KBS 네트워크 특선 (노장불패) 55 바른말 고운말(재)	2 15 통일전망대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10 콘서트 필 및 재방송(재)	00 KBS 뉴스타임 05 꼬마과학자 시드(재) 35 후투스 잃어버린 숲(재)	3 05 네트워크 특선	10 우리땅 속살보기 (오지)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랑의 가족 40 김성다큐 미지수 스페셜	00 TV 유치원 30 주유링 동물탐정	4 00 MBC 뉴스 10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40 창작만화	00 스킨2고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15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레피	00 2TV 하이라이트 (비타민)(재)	5 10 세상사건 스페셜	00 SBS 뉴스 페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출산장려프로젝트 (아이가 미래다 2부)
00 6시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성서	6 00 MBC 6시 뉴스캐거진	00 출동명물극 30 생방송!KBC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10 거가대교 개통기념 축하음악회	10 생생정보통	7 00 생방송 전국시대 45 일일시트콤 (중앙 내 사랑)	10 시사타지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호박꽃 순정)
25 일일연속극 (웃어라 동해아)	35 KBS 뉴스타임(광주전남) 50 위기탈출 넘버원	8 15 일일연속극 (복종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월화드라마(관객이 아베일)
00 KBS 뉴스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드라마 (매리는 외박 중)	9 50 MBC 스포츠 뉴스 55 월화드라마 (역전의 여왕)	55 SBS대기획 (아테나)
00 가요무대 특집 (강원도 정선편)		10	
00 KBS 뉴스라인 30 과학카페		11 05 행복한 문화마을 꿈꾸리	15 밤이면 밤마다
20 KBS 뉴스 20 2010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막식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낭독의 발견	12 1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25 나이트 라인 45 세네포트



배우 김갑수, 트위터로 팬들과 소통하다

‘맨유로 초코파이 보낸 사진’·‘1초 현빈?’ 등 댓글로 친근한 모습 보여줘

지난 9일 오후 배우 김갑수(사진)의 트위터에 초코파이 사진 한 장과 함께 ‘맨유로 초코파이 보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트윗을 보낸 상대는 박지성의 팀 동료인 축구선수 리오 퍼디낸드였다. 퍼디낸드가 지난 4일 박지성의 팬들이 보내준 초코파이를 다른 선수들과 맛있게 나눠 먹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데 따른 것이었다. 김갑수는 지난 1일에는 형용사인 머리에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우울한 표정을 짓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팬들은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반짝이 트레이닝복을 입어 화제가 된 현빈과 비교하며 ‘내 눈엔 현빈 못지 않다’ ‘1초 현빈?’ 등의 댓글을 달며 호응했다. 김갑수는 7만9000명의 팔로워를 거

느린 트위터 스타다. 트위터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연기와 종경 배우로 알려졌지만 트위터를 통해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며 젊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보석도 트위터 팔로워가 1만명이 넘는다는 ‘자이언트’에서 악의 화신 조필연으로 분했던 그는 트위터를 통해 세심하게 팬들을 챙긴다. ‘자이언트’ 촬영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팔로워들의 응원 코멘트에 감사의 댓글도 종종 단다. 영화계 종경스타 박중훈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히기로 유명하다. 그의 팔로워는 9만명에 육박한다. 영화나 인물에 대한 그의 평가는 종종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다. 트위터 사람이 지극하다는 소문에 걸맞게 자신의 근황도 시시각각 전한다. tvN의 시

트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생초리’에서 열연 중인 배우 김학철도 트위터로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 분야는 다르지만 개그맨 이경규도 지난 9월말 트위터를 개설한 후 동료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을 종종 트위터에 올리며 활발히 활동한다. 지난 2일에는 ‘남자의 자격’을 통해 입양한 개 남순이와 다정하게 누워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화제가 됐다. 문화평론가 정덕현씨는 12일 “경륜 있는 스타들은 권위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데 트위터를 통해 스스로 그런 이미지를 깨는 모습이 젊은 층에게 어필할 것 같다”며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트위터의 특성이 이들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4회 광주바둑협회장배

흑을 편하게 한 절단
유단지부 결승전 4보(55~76)
백 김일 5단 흑 이창교 5단

흑이 약점을 지키지 않았으니 ㉞로 찰라 약점을 추궁한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다음 백 58로 끊어간 것이 기분에 치우친 수로 흑을 편하게 해 주고 만다. 흑이 잡싸게 61로 파고들어서 71까지 평평거리고 살아버리자 이창교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EBS

06:00 세계테마기행 (황금미소의 유혹, 태국)	10:00 EBS 10시 뉴스 10:10 60분-부모	15:30 동동명 유치원(재)	20:00 세계의 교육현장 (일본 편)
06:40 한국기행(일양)	11:10 최고의 요리비결 (김막걸리의 속드란한 일주일 식단)	15:50 꼬마새 마핀	20:30 EBS 뉴스
07:00 신나는 인생 5678	11:40 생방송 교육이당	16:00 푸바푸바 눈보리	20:45 지식채널 e
07:30 동동명 신나는 아침	12:30 세계의 교육현장 (뉴질랜드 편)	16:15 키득키득 맛있는 실험실(재)	20:50 세계테마기행 (오래된 신세계, 페루)
07:50 특수요원 오소	13:00 EBS 스페이스 공감 13:50 포로열전 (웨딩플래너)	16:25 호기심 대장 포코요	21:30 한국기행(일양)
08:00 동동명 유치원	14:20 세계테마기행 스페셜 (술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	16:35 방귀대장 뽕뽕이(재)	21:50 디류프라이밍(사랑의 기술)
08:20 키득키득 맛있는 실험실	15:00 두근두근 우리들 세상	16:50 상글빙글 피자	22:40 대류 인생 2막 (초보농사꾼, 시골정적기)
08:30 꼬마버스 타요	15:05 신기한 스쿨버스	17:00 뽕뽕뽕 뽕뽕로(재)	23:10 대류 10 + (자연)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7:10 슈퍼 와이	00:00 지식채널e(재)
09:00 뽕뽕뽕 뽕뽕로		17:40 특수요원 오소(재)	00:05 세계테마기행 스페셜 (시원한 땅, 아제르바이잔)
09:15 차로의 클래식 동요		18:05 생방송 특! 특! 보너하니	00:45 상상과 창조: 인문학 이야기
09:25 캐미랑 부키체가		19:05 삼국지	
09:35 제로노모의 모험		19:30 한자 교육 드라마 (어린이 孫子兵法)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4:10 EBS포스 (정현경의 포스 수학 1)	08:00 9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5:00 EBS 탐스런 (한국근현대사)	08:30 초등수학-매트레이닝
06:00 EBS 포스 (고전문학)	09:00 EBS TV 중학 1학년 (문학)
07:00 " (수학 1)	09:40 " (수학 1-2)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국어(하))	10:20 EBS TV 중학 2학년 (한문)
08:40 " (과학)	11:00 방귀대장 뽕뽕이(재)
09:30 EBS 필승전략 (강운수의 언어 1등급)	11:15 EBS 클럽뱅크(1)
10:00 세계의 교육현장 (한국근현대사)	11:35 Easy Job English
10:30 생방송 TV 입학사정관	11:50 EBS TV 중학 2학년 (국어)
11:30 한민에 끌려 (영어영역)	12:30 " (수학 2-2)
12:00 EBS 내선 6강 (국어(하))	13:10 EBS 중학 2학년 (한문)
12:50 " (물리)	13:50 왕초보 중학영어-리스닝
	14:30 EBS 초등영어
	14:50 EBS 클럽뱅크(2)
	15:10 Sing Sing 영어동요
	15:20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교과
	15:50 EBS 초등 내용 탐방
	16:20 " (국어 3-2)
	16:50 " (국어 4-2)
	17:20 " (국어 5-2)
	17:50 EBS TV 중학 1학년 (문학)(재)
	18:30 " (수학 1-2)(재)
	19:10 EBS TV 중학 2학년 (한문)(재)
	19:50 " (국어)(재)
	20:30 " (수학 2-2)(재)
	21:10 중2 퍼펙트 체크업 (국어)(재)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워	한자 이야기
<p>I am running to the soda machine 청량음료 자판기에 가려고 하는데요</p> <p>A: I am running to the soda machine. Do you want anything? B: Yes, I would like a Coke. A: What if they are out? B: I'll have an orange juice. Here is 1000 Won. A: Don't worry about it. You can get me one next time.</p> <p>A: 청량음료 자판기에 가려고 하는데요. 뭘 좀 마실래요? B: 네, 콜라가 마시고 싶는데요. A: 만약 매진됐으면 어떻게 하죠? B: 오렌지주스로 마실게요. 여기 1000원 있습니다. A: 신경쓰지 마세요. 다음에 저한테 하나 주시면 돼요.</p> <p>* 커피 드시겠습니까? = Are you going for coffee? * 지금은 삼가고 있어요. = I'm cutting back.</p>	<p>感想がないですね。 감상이 없군요</p> <p>A: 日本語のレポートはもう書きましたか。 B: はい、書きました。間違いないかどうか、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A: 内容は良くできていますが、感想がないですね。 B: あ、すみません。書き直します。 A: 일본어 리포트는 다 썼습니까. B: 예, 썼습니다.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세요. A: 내용은 잘 되 있습니다만, 감상이 없군요. B: 아,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p> <p>[단어정리] 間違いない 실수 내용 感想 감상 내이지 어떤지 チェックする 체크하다 쓰기直す 다시 쓰다</p>	<p>怎么样 어때요</p> <p>A: 晚上我们吃肉, 怎么样? wǎnshàng wǒmen chī ròu, zěnmeyàng (완상워먼츠로우, 썬미양) B: 太好了, 现在就准备吧。 tài hǎo le, xiànzài zhǔnbèi ba (타이하오러, 시엔짜이찌우썬뽀미바) A: 可以, 我去买肉。 kěyǐ, wǒ qù mǎi ròu (케이, 워취마이로우) B: 那, 我去买酒。 nà, wǒ qù mǎi jiǔ (나, 워취마이저우) A: 저녁에 우리 고기 먹는거 어때요? B: 아주 좋아요. 지금 바로 준비하죠. A: 좋아요. 제가 고기 사러 갈게요. B: 그럼 제가 술 사러 갈게요.</p> <p>◆ 새로운 단어 (生词) 准备 (zhǔnbèi) 준비하다 那 (nà) 그럼 怎么样 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볼 때 자주 쓰이는 형태이다. 때로는 好吗? 라는 형태로도 많이 쓰인다.</p>	<p>過猶不及(과유불급) 지날 과, 오히려 유, 아니 불, 미칠 급</p> <p>과유불급(過猶不及)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p> <p>자공(子貢)이 공자(孔子)에게 “사(子貢)와 상(子하) 중 어느 쪽이 현명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사가 낫단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하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대답하였다. 즉,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안한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p> <p>[출전] 『논어』〈선진편(先進篇)〉 * 급 수 : 한자능력검정 5급, 준3급, 7급, 준3급</p>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 http://www.kjasuka.co.kr ☎ 232-150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대능출판〉 www.daeneungedu.com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3일(음 11월 8일 丁酉)

子	36년생 놀랄 만한 일 생기나 좋은 일이다. 48년생 눈물보다는 웃음이 얼굴에 나타난다. 60년생 문서상 예로가 발생할 수도 있다. 72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고 덕을 베풀어라. 84년생 바쁜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12,43
丑	37년생 보고 싶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싶은 사람만 보인다. 49년생 속단은 금물이나 여유 있게 생각하라. 61년생 시간은 지루하나 뜻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73년생 애인이 생길 수도 있다. 85년생 옛 감정을 잊고 화해하면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13,34
寅	38년생 욕심을 버리고 자중하라. 50년생 일회일비가 있지만 과욕만 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62년생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74년생 자신의 인생설계에 변화가 온다. 행운의 숫자 : 16,37
卯	39년생 작은 병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51년생 잘못된 옛 일이 자신을 괴롭히는 하루가 된다. 63년생 절대 분수를 지켜야 화가 작아지리라. 75년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뜻을 내보라. 행운의 숫자 : 20,45
辰	40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나타나지만 큰 도움은 못준다. 52년생 직장에서는 행동을 잡어서는 말을 조심하라. 64년생 어려웠던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76년생 친한 사이에 새로운 사업은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25,35
巳	41년생 호랑이에게 거꾸어주는 격이다. 53년생 가정 직장 자신 사이에 불화가 생기나 곧 해결된다. 65년생 갈바기와는 다르게 일이 잘지가 않다. 77년생 과도한 욕심이 없는 편을 안한다. 행운의 숫자 : 32,41
午	42년생 남여사이에 구설수로 명예에 흠집이 날까 무섭다. 54년생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66년생 너무 자신의 재주를 믿지 말고 준비하라. 78년생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 행운의 숫자 : 01,41
未	43년생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있으니 조심하라. 55년생 부부사이에 의무를 다하면 이별은 없으리라. 67년생 부자지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니 기회를 만들라. 79년생 고통이 따를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하라. 행운의 숫자 : 11,21
申	44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결과가 좋으리라. 56년생 아내의 남편을 남편의 모습이 살려보라. 68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없으리라. 80년생 아들 딸과 대화를 하고 고민을 들어보라. 행운의 숫자 : 11,39
酉	45년생 아무리 친한 친구의 말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 57년생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정해도 좋다. 69년생 잃고 싶은 일이 생기나 어려운 일은 아니다. 81년생 이성으로 마음이 헷갈리니 중심을 찾아라. 행운의 숫자 : 19,30
戌	46년생 인생의 후반전 계획이 중요하다. 58년생 자신의 임의로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70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했던 일들이 잘 풀려간다. 82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히 예정을 놓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0,29
亥	47년생 형제 부모가 도우니 모든 일이 편은하다. 59년생 힘 줄때와 힘 뺀 시기를 놓치지 마라. 71년생 구설수 시비 송사 등등 모든 것은 자신의 행운이 원인이이다. 83년생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가려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1,33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